

38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에서 불안정노동자로

한국사회운동사에서 대학생의 지위 변천사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에서 불안정노동자로 한국사회운동사에서 대학생의 지위 변천사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과연 오늘의 대학생은 저항하지 않을까

1960년 4월혁명에서 1987년 6월항쟁에 이르는 시기는 ‘학생운동의 시대’라고도 불린다(이호룡·정근식 엮음 2013). 그만큼 한국의 민주화에 학생운동이 기여한 바는 크다. 4월혁명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학생운동은 이후 30여년 동안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왔고 끝내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4월혁명 60주기를 1년 정도 남겨 놓은 오늘, 학생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애석하게도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민주화 이후 30여년 동안 학생운동은 위기를 넘어 쇠락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소멸될 처지에 놓인 듯 하다. 물론 오늘날에도 학생들의 저항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운동’이라고 부르는 어려운,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도대체 그동안 한국 학생운동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운동주체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0년대는 물론이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의 특권층에 가까웠다.¹ 당시 지식담론을 독점하고 있던 대학은 소수만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만큼 대학졸업장은 그 자체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고 스스로도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학생운동은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 속에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바를 논할 수 있었다. 지식인으로서 부채의식 때문에 민중에게 헌신했으나 내려놓을 ‘특권’이 있었기에 ‘헌신’은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대학생은 어떠한가?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그런 만큼 대학생으로서의 특권은 사실상 사라졌다. IMF 외환위기는 대학생의 경제적 지위마저 빼앗아갔다. 대학생은 이제 좁은 취업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그나마도 질 좋은 일자리는

1) 보통 학생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피교육자’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피교육자를 통칭한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학생운동은 주로 대학생에 의한 것으로 이 글에서의 ‘학생’도 대학생을 가리킨다.

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불안정 노동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스펙을 쌓아나가야 할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다. 더구나 지금대로라면 졸업이후에도 소수만이 ‘무언가’가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취준생, 청년실업, 빈곤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혹자는 오늘의 대학생들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학생들에게 “짱돌을 들” 것을 요구했던 우석훈·박권일(2007)이나 학생들에게 분노할 것을 요구한 장하성(2015)이 그랬다. 2019년에도 이러한 주문은 계속되고 있다(이범 2019/06/18). 그러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존재조건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학생운동’을 요구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오늘의 대학생들 역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꾸준히 저항들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그것이 과거의 학생운동처럼 눈에 잘 띠지 않을 뿐이다. 엘리트의 저항은 눈에 잘 띈다. 그러나 하층노동자의 저항은 조직되기 어렵고 또 주목받기도 어렵다. 마치 4월혁명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하층의 청년노동자들이 당시 엘리트였던 대학생에 가려 잊혀졌던 것처럼.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전개된 사회운동사 60년의 몇 가지 상징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엘리트 지식인이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하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학생들이 이제는 내려놓을 특권도 없이, 인정받을 ‘헌신’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02

엘리트 대학생,
4월혁명의 주체가 되다

1960년 4월혁명은 정부수립 이후 대학생이 전면에 등장한 첫 번째 항쟁이다.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학생이 항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1운동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29년에는 광주에서 촉발된 전국적 학생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이때의 학생운동은 모두 중고등학생이 중심이었다(정근식 2013, 43). 대학생이 저항에 참여한 경우는 ‘국대안 파동’이 있는데 이 사건 역시 미군정기에 발생한 것으로 정부수립 이전이다.²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의 독재가 12년이나 지속되었지만, 대학생의 저항은 발생하지 않다가 1960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드디어 4월혁명으로 폭발하게 된다.

4월혁명은 한때 ‘4.19학생의거’라고 불렸을 정도로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4.19’가 상징하듯 이때의 ‘학생’은 대학생을 가리킨다. 4월 19일은 대학생이 본격적으로 항쟁에 가담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루 앞선 4월 18일 고대생들이 먼저 단독 시위에 나섰다. 그런데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중 반공청년단 소속의 깡패들에게 기습을 받아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다음날인 4월 19일 아침 폭행당해 쓰러진 학생들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분노한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4월혁명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4월혁명의 출발은 4월 19일(혹은 18일)이 아니었고 주된 참여자도 대학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4월혁명의 시작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 시위였다. 3.15 선거를 앞둔 2월 28일 일요일,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 후보의 선거유세가 대구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이승만의 자유당 경북도당은 선거유세에 고등학생의 참여를 막기 위해 각급 기관장과 학교장을 소집하여 이날 학생들을 등교시키도록 지시한다. 일요일에 강제등교라는 무리한 지시에 학생들은 오히려 수업거부로 대응했다. 그리고 경북고를 시작으로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등 8개

2)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의 여러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단일 종합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는데 통합 대상 학교들의 교수와 학생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국대안 파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관련 대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바로 4월혁명의 발단이 되는 대구의 2.28민주운동이다.

3.15 마산의거 역시 주된 참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발생한 1차 마산의거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일곱 명은 모두 17세에서 21세 연령대였다(유명철 2018, 42). 이날 행방불명되어 4월 11일 시신으로 발견된 김주열 군 역시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었다. 고등학생의 시위는 2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일관되게 계속됐다(〈표1〉 참조). 심지어 4월 18일, 19일에도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참여가 더 두드러진다.

〈표1〉 4월혁명 국면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참여 현황

| 날짜 | 시위주도 (고등학교, 대학교) | 규모 | 날짜 | 시위주도 (고등학교, 대학교) | 규모 |
|------|--|---------|------|---------------------------|----------|
| 2.28 | 경북고, 대구고, 사대부고, 대구상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 1200여 명 | 3.17 | 성남고, 진해고 | 600여 명 |
| 3.1 | 공명선거추진전국학생위원회, 공명선거추진전국대학생위원회, 경북여고, 대구여고, | 100여 명 | 3.24 | 부산고 | 1000여 명 |
| 3.5 | 서울의 고등학생들 | 1000여 명 | 3.25 | 동성중고, 경남공고, 혜화여고 | 400여 명 |
| 3.7 | 동아고, 경남고 | 소규모 | 4.4 | 전북대 | 7~800여 명 |
| 3.8 | 대전고 | 1천여 명 | 4.11 |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 | 2만여 명 |
| 3.10 | 대전상고, 수원공고, 충주고, 민권수호전국학생투쟁위원회 | 1000여 명 | 4.12 | 마산공고, 창신고, 마산상고, 마산간호고 | 2만여 명 |
| 3.11 | 민권수호전국학생투쟁위원회 | 소규모 | 4.13 | 해인대학, 성지여중고, 마산여중고 | 1400여 명 |
| 3.12 | 해동고, 동래고, 동성고, 향도고, 혜화여고 | 450여 명 | 4.14 | 진양고 | 소규모 |
| 3.13 | 서울의 야간고등학생, 오산고 | 200여 명 | 4.15 | 마산상고, 마산고 | 소규모 |

| 날짜 | 시위주도 (고등학교, 대학교) | 규모 | 날짜 | 시위주도 (고등학교, 대학교) | 규모 |
|------|---|---------|------|--|-----------|
| 3.14 | 중동고, 대동고, 균명고, 경문고, 대동상고, 동래고, 부산상고, 향도고, 북부산고, 영남상고, 데레사여고, 포항고, 원주농고, 송도고 | 1500여 명 | 4.16 | 청주공고 | 2~300여 명 |
| 3.15 | 마산의 고등학생, 광주의 고등학생과 시민 | 만여 명 | 4.18 | 고려대, 동래고, 경남공고, 부산공고, 향도고, 청주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여상 | 6~7000여 명 |
| 3.16 | 서울의 고등학생, 진해여고, 충무중, 영남상고, 해동고, 건국상고 | 500여 명 | 4.19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건국대, 중앙대, 홍익대, 경기대, 단국대, 외대, 국민대, 서라벌예대, 세브란스의대, 가톨릭의대+시민, 금성고, 부산공고, 부산상고, 경남공고, 데레사여중고, 경북대,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여고, 광주여고, 광주공고, 조선대부고, 광주상고, 광주농고, 사례지오고, 수피아여고, 광주사대부고, 송일고, 인천공고, 성광상고, 동산고, 송도고, 청주대, 청주농고 | 수십만 |

*출처: 유명철(2018, 65~66)에서 인용 및 재구성

청년 하층 노동자의 참여도 빼놓을 수 없다(이승원 2009; 김미란 2010; 오제연 2014). 몇 가지 사례를 보면(오제연 2014, 147, 153), 3월 15일, 4월 11일 마산에서의 밤 시위는 주로 직업소년과 같은 하층노동자가 주도했다. 4월 19일 광주에서 시위 도중 사망한 8명 중 경찰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노동자, 취준생, 무직자들이었다. 부산의 경우도 구두닦이, 음식점 종업원, ning마주이 등 도시하층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4월혁명 당시 희생자들의 직업분포를 나타낸 다음 <표 2>를 보면 대학생은 22명인데 반해 고등학생 36명, 하층노동자 61명, 무직자는 33명에 달한다.

<표2> 4월혁명 당시 사망자 직업분포

| 직업 | 사망자 수 | % |
|-----------|-------|-------|
| 초등학생, 중학생 | 19 | 10.4 |
| 고등학생 | 36 | 19.3 |
| 대학생 | 22 | 11.8 |
| 회사원 및 학원 | 10 | 5.4 |
| 하층노동자 | 61 | 32.8 |
| 무직자 | 33 | 17.7 |
| 미상 | 5 | 2.7 |
| 계 | 186 | 100.0 |

*출처: 이승원(2009, 196)에서 재인용

4월혁명에서 대학생의 역할이 결코 작았던 것은 아니며 그들 역시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4월혁명은 결코 대학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4월혁명의 주역은 대학생이었다. 또 다른 주역인 고등학생과 청년 하층노동자는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잊혀졌다(김미란 2010a, 81).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혁명의 주체가 되는 과정은 해당 집단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외부 집단의 지지도 요구된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대학생들은 곧바로 질서회복운동에 들어간다. 학생들은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게 있다’라는 자각 속에 서울의 치안을 정돈하고 시민에게 질서를 호소하며 도로를 청소하는 등 혁명의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오제연 2013, 145). 반면, 고등학생은 더 배워야 할 그저 어린 10대로 취급당했고 직업소년 등 ‘비학생 청년’들은 폭도로 불리면서 주변화됐다(김미란 2010, 23). 이러한 구분은 지식인과 언론에 의해서 강조되었고 대학생들 역시 그러한 호명을 거부하지 않았다(김미란 2010a, 86).

이처럼 대학생이 혁명의 주체로 나서고 그것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자타공인 초특급 엘리트였던 대학생의 지위 역시 한몫했다. 1960년대는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진학률도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다.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생은 말 그대로 지식인의 상징이었다. 더구나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 제108조는 대학을 '지도자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오제연 2013, 39). 말하자면 대학생은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자타공인 미래의 지도자였던 대학생들에게 도시하층민은 혁명 주역의 역할을 나눠 가질 '동료'라기보다 가르쳐서 일깨워야 할 계몽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쨌거나 4월혁명은 대학생들에게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엘리트'라는 사명의식을 갖게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엘리트로서의 책임감이야말로 한국의 대학이 4월혁명 이후 30년 이상 한국 민주화운동의 근거지가 되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03

7080년대, 학생운동가의 노동현장 투신과 ‘학출’이라는 호명

4월혁명기 특급 엘리트에 속했던 대학생. 이들은 민중과 자신을 구분 짓고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박정희독재체제 아래에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화되자 학생운동권에는 완전히 상반된 실천이 등장한다. 학생운동가들이 점차 ‘민중’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노동현장 투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현장 투신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유경순 2013, 59). 그러나 당시 노동현장에 투신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보다 조금 더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70년 발생한 전태일 분신 사건이다(이태복 1994, 265). 대학생 친구 한 명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전태일의 이야기는 대학생들에게 알려졌고 이들이 노동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70년대 노동현장 투신은 아직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그 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부터 노동현장에 투신한 학생운동가에게 ‘학생 출신 노동자’ 줄여서 ‘학출’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유경순 2015, 201).

80년대 노동현장 투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광주항쟁이다. 은수미는 “학생운동의 서울역 회군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광주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한국사회에서 급진적인 개혁의 주체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이라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말한다(은수미 2006, 208). 이 시기 학생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운동을 마치면 당연히 노동현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구해근 2002, 177-184). 심지어 학생운동가들은 시위를 주동하는 행위가 정권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는 것임과 동시에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의식으로 받아들였다(유경순 2015, 231). 현장투신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표3〉 참조) 학맥, 인맥을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의 서클들이 현장으로 옮겨온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Ibid. 237).

〈표 3〉 학생 출신 노동자들의 현장투신 상황

| 구분 | 자료출처 | 학생운동출신(명) | 현장근무여부 | 비고 |
|---------|-------------|-----------|------------------------|-------------------|
| 1985.6 | 노동부장관보고 | 160명 | 71명해고/53명자퇴/36명근무 | |
| 1985.7 | 동아일보(7.26) | 198명 | 92명해고/72명자퇴 | 1개월동안 38명증가 |
| 1985.12 | 동아일보(12.15) | 302명 | 176명해고/11명사직 /14명근무 | 6개월동안 2배증가 |
| 1986 | 부천상의소식 | 699명 | | 약1년동안 3.2배증가 |
| 1989.6 | 74.7 | 1.363 | | 80년 ~ 83년 이전까지 |

*출처: 은수미(2006, 212)에서 재인용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당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어디까지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학생은 여전히 엘리트층에 가까웠다. 1979년 대폭적인 대학 정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초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15% 이하인 사회는 엘리트주의 고등교육, 15~50% 사이인 사회는 고등교육 대중화 체제, 50% 이상인 사회는 고등교육 보편화체제로 정의된다(윤해동 2015, 606). 이 기준에 근거할 때 1980년대 한국의 대학은 엘리트 교육을 벗어나 대중교육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혜택받은 자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대단히 컸다. 다음의 〈표4〉를 보면, 1986년 대졸자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고졸자 노동자 임금의 2.2배나 된다. 대졸자와 중졸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무려 3배에 육박한다. 당시 한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졸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시장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었던 것이다(윤해동 2015, 607).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대학만 가면 된다’는 풍토와 대학 입시를 둘러싼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표 4〉 교육 정도별 임금수준

| 구분 | 중졸 | 고졸 | 대졸 |
|-------|------|-------|-------|
| 1976년 | 59.1 | 100.0 | 229.7 |
| 1980년 | 68.8 | 100.0 | 228.5 |
| 1985년 | 74.7 | 100.0 | 226.5 |
| 1986년 | 77.6 | 100.0 | 222.0 |

출처: 이상록(2018, 303)에서 재인용

노동현장에 투신한 학생운동가들의 목표는 노동자로 노동하고 생활하면서 노동자의 문화를 습득하여 존재와 의식이 일치된 노동운동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산층으로서의 존재나 문화를 부정할 것을 요청받았다(유경순 2015, 233). 이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식인으로서 부채의식과 민중에 대한 헌신 때문이었다(이남희 2015, 417). 제일교회 야학에 참여했던 황인상의 구술은 이점을 잘 보여준다.

“봉제 공장 노동자들의 상태는 열악해요. 잔업이 많고, 건강도 안 좋고, 급여도 열악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동정심도 많이 생기고. 또 개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들이 우리한테 의지하는데 보람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런데 우리보다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뭐랄까? ‘나는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사회에 대해서 죄스럽다’라고 그럴까? ‘뭔가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유경순 2015, 227-8)

그러나 황인상의 구술에서도 드러나듯 학생운동가는 자신과 현장의 노동자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의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학출노동자에 대한 경계심으로 나타났다. 낙골야학에 참여했던 황광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학[야학에서 강의하는 학생-인용자]과 학생들 간에 갈등도 상당히 많았어요. 서로 원원하는 그런 관계만이 아니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당시 노동자하고 빈민들이 대학생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 같은 게 굉장히 강했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뭘도 모르고 강학들을 좋아했지, 그러다가 ‘우리 이용해 먹고 떠날 애들 아니냐’, 뭐 ‘니들 먹물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 내가 처음 노동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불신병.” (유경순 2015, 224)

황광우가 말하는 불신병은 학생운동가들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실제 많은 학출노동자들이 익숙치 않은 공장생활로 인해 병들었고 준비 없이 공장 생활을 시작했다가 자신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조기에 공장 생활을 그만두었다(구해근 2002, 182). 그러다 보니 1년 이상 현장활동을 했던 학생운동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은수미 2006, 228). 노동자들 역시 언제나 학출노동자를 환영했던 것도 아니었다.

“소위 말하는 이들 활동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그들은 인내심이 없다.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한다. 무언가를 해서, 성공할 수도 없는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떠나버린다.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인천의 여성 노동자와의 인터뷰; 전순옥 2004, 370에서 재인용).

학생운동가가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거대한 희생이자 헌신이다. 대학생으로서 향후 누릴 수 있었던 중산층의 삶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들이 엘리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특권이 있었고 그것이 희생과 헌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오하나 2016, 592). 이들은 엘리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의 '원래 위치'인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노동현장에서의 헌신을 인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 예를 들면 국회의원 배지나 관직을 얻기도 했다(채구묵 2007, 40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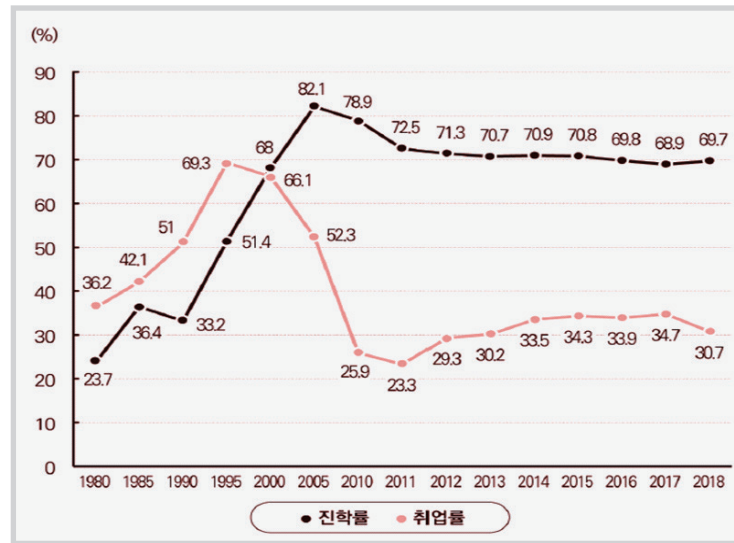
민주화 이후 30년: 불안정 노동자가 된 대학생, 당사자운동을 시작하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가의 노동현장 투신은 점차 사라진다. 노동운동이 제 발로 서게 되면서 더 이상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존재근거를 부정하면서까지 현장에 투신하여 노동자를 도울 필요도 당위도 없어진 것이다. 대신 학생들은 이제 민주화 이전 30년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실천에 돌입한다. '당사자' 운동이 그것이다. 민주화 이전 학생운동이 민족과 민중, 체제변혁과 같은 거시 담론에 관심을 두었다면 민주화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현 위치로부터 운동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청년당사자 운동은 2010년대에 본격화된다. 그러나 사실 그 첫 출발은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른바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이 그것인데 이 운동은 학생운동가들에게 현장투신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되 취업현장에서 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김기식 1997, 49). 6월항쟁에서 넥타이부대가 등장하고 노동자 대투쟁에서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겨나면서 장차 화이트칼라가 될 학생들이 취업하게 될 바로 그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이제 대학생들이 진출(혹은 취업)하는 노동현장은 대부분 대졸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80년대와 같은 '학출'이라는 호칭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 학생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될 것이므로 노동자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 역시 적절치 않다. 김동춘은 이 운동을 민중주의적 전통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학생 출신이 '부르주아화'하는 것으로 우려했다(김동춘 1998, 110-2). 그러나 이후의 전개과정은 학생 출신의 부르주아화라기보다 대졸 사무직 노동의 프롤레타리아화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 한국의 대학과 경제 전반에 엄청난 격변이 발생한다. 먼저 지식인 엘리트를 양성하던 대학의 성격이 변했다. 1995년 김영삼 정권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하여 대학설립이 자유화된 것이다. 이후 대학진학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995년 50%, 2000년대 80%가 넘으면서 말 그대로 원한다면 '누구나' 대학에 가는 시대가 되었다(그림1) 참조).



〈그림 1〉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1980~2018)

*출처: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기초중등교육통계편〉(2018, 59)

대학은 한 사회에서 가장 고급 지식생산의 장이어야 하며 학문적 탐구와 비판의 장이어야 한다(김동춘 1998, 114-5). 최소한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는 어떠한가? 윤희동은 오늘날 한국 대학교육은 중등교육화되었다고 말한다(윤희동 2015, 608-610). 대학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이 미국대학의 ‘피더스쿨’³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상당 부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이며 이들 교수는 학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을 권유한다. 아예 처음부터 미국대학으로 조기유학 하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다. 더 이상 대학은 사회적 지배 담론의 생산지가 아니며 대학생도 ‘지식인’이 아니다.

다른 한편, 대학생의 경제적 지위 역시 하락했다. 무엇보다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학생은 급기야 상대적 과잉인구가 됐다(최철웅 2011). 〈2018년 10월 고용 동향〉(통계청)을 보면 20대의 고용률은 42.9%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다른 세대(30대 75.8%, 40대 79.1%, 50대 75.5%)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고용의 질은 더 열악해서 서울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청년활동 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서울시의 18~29세 청년 중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은 78.5%, 이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파이낸셜뉴스 2017/02/15).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3) 피더스쿨(feeder school)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대학이 미국 대학의 피더스쿨이라는 것은 한국의 대학이 미국대학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대학에 종속된 하위 대학으로 미국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로 전락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명문대라고 해서 다를까? 여전히 대학 입시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명문대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과 자부심은 높다. 그러나 대학 졸업장 혹은 명문대 졸업장은 중요한 스펙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난 듯하다. 오랫동안 대학은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공인된 계급 상승의 통로가 되어 왔지만, 과연 오늘날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생의 처지가 이렇다 보니 20대 청년은 ‘후기 청소년기’로 규정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 부모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선기 외 2018, 37). 더욱이 오늘날 청년은 ‘부모세대보다 더 돈을 못 버는 최초의 자식 세대’다(중앙일보 2019/02/19). 4.19세대에게 자신보다 학력이 한참 낮은 부모세대는 극복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강내희 2010, 139), 60년 만에 세상은 완전히 변한 셈이다.

이처럼 청년층이 새로운 ‘경제적 소외계층’이 되면서 대학생/청년들은 불안정 노동과 실업이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201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청년당사자 운동들이다(김선기 외 2018). 이들 청년당사자 운동 조직들의 주요 활동가들은 대학 재학생이거나 대졸자 청년들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경계가 흐려졌고 따라서 이 운동을 ‘학생운동’이라고 부르는 어려워졌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민달팽이 유니온은 20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으로 만들어졌다가 점차 전체 청년주거문제를 아우르는 형태로 확장되어온 경우이다(편집부 2011, 148). 청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과 청년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20대 초반 세대가 이끄는 알바노조의 경우도 회원의 학력이 대부분 대학 재학이거나, 대졸, 혹은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표5〉 참조). 이들은 대부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시간 내외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 평균 월 소득은 청년유니온이 160만 원대, 알바노조는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80만 원대에 불과하다. 고학력 빈곤층이라 불려도 무방하다.⁴

4) 물론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청년유니온 회원의 학력은 알바노조 회원보다 훨씬 더 높고 그것은 월평균 소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복지정책 지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순 2017). 이점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와 분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5〉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직현황과 조합원 구성

(단위:%)

| 구분 | | 청년유니온 | 알바노조 |
|------------------------|---------------|---|--|
| 창립 | | 노조필증 2013. 04. 30. (2010. 02. 13. 1기 출범) | 노조필증 2013. 08. 07. (2013. 01. 02. 알바연대 → 알바노조) |
| 조합원(후원회원)(2015.10. 현재) | | 1,104명(486명) | 약 500명(약 550명) |
| 조직형태 | | 지역지부 중심(8개) | 대학분회 중심(7개) |
| 성별 | 남성 | 61.2 | 60.8 |
| | 여성 | 38.8 | 39.2 |
| 연령 | 10~20대 | 46.8 | 90.7 |
| | 30대 | 53.2 | 9.3 |
| 학력 | 고졸 이하 | 3.6 | 9.4 |
| | 전문대 재학·졸업 | 5.5 | 3.1 |
| | 4년제 대학 재학·중퇴 | 24.2 | 72.9 |
| | 4년제 대졸 | 46.6 | 12.5 |
| | 대학원 재학 이상 | 20.1 | 2.1 |
| | 하지 않음 | 17.6 | 55.7 |
| 경제활동 | 졸업 후 취업·진학 준비 | 5.0 | 5.2 |
| |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 10.2 | 10.3 |
| | 현재 취업상태 | 67.2 | 28.9 |
| 고용 사업장 규모 | 1~9인 | 52.6 | 71.9 |
| | 10~29인 | 14.6 | 15.6 |
| | 30~99인 | 16.1 | 1.6 |
| | 100인 이상 | 16.7 | 11.0 |
| 근로시간형태 | 전일제 | 78.7 | 34.3 |
| | 시간제 | 21.2 | 65.7 |
| 노동조건 | 주당 평균 근로일수 | 4.5일 | 4.2일 |
|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33시간 | 30.1시간 |
| | 평균 월소득 | 164.3만원 | 84만원 |
| 직업 | 관리직 | 5.4 | 2.7 |
| | 전문직 | 44.0 | 10.8 |
| | 사무직 | 24.9 | 14.9 |
| | 서비스·판매직 | 12.0 | 44.6 |
| | 단순노무직 | 7.7 | 24.3 |
| | 기타 | 6.0 | 2.7 |

*출처: 김영순(2017, 239)에서 재인용

주목되는 점은 이들 청년당사자 운동이 우리가 익히 알던 ‘대학생과 노동자’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 혹은 ‘학출노동자’는 대학생과 노동자의 계급적, 신분적 차이를 전제하는 것이었다(유형근 2015, 39). 그러나 지금의 청년당사자 운동은 오늘날의 청년, 대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전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05

훈계보다는 연대를

이 글은 한국사회운동사의 몇몇 상징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지위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한때 특급 엘리트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대학생은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자가 되었다.

한때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속에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바를 논하고, ‘지식인으로서의 부채의식’, ‘민중에 대한 헌신’ 때문에 노동현장으로 달려갔던 그 학생운동이 오늘날 다시 강림할 수 있을까? 대학생 전반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더욱 좁고 치열해진 노동시장 상황, 그럼에도 바늘구멍을 통과한 몇몇은 살아남을 수도 있는 상황, 더욱 세밀하게 분열된 대학 간 서열화, 대학 내 서열화 등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과거처럼 대학생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 묵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묵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2016년 촛불 항쟁에서 대학생의 시국 선언이 이어질 때 ‘지잡대’의 시국 선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처럼 대학생 내부의 차이점만 확인하고 끝날 수도 있다(서울경제 2016/11/03).

그러나 과거와 같은 학생운동이 없더라도 뭐가 아쉬운가? 과거처럼 휘황찬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늘날 청년 학생들은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저항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선배세대가 그랬듯이 오늘날 청년 학생들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처절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는 내려놓을 특권도 없으며 구제의 대상은 그들 자신이다. 그것만으로도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운동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때는...”식의 훈계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아낌없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줄 자세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김내희. 2010. "4.19세대의 회고와 반성." 『문화과학』 62. 136-157.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옮김. 창작과비평사.
- 김기식. 1997.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고민과 모색." 『역사비평』. 46-60.
- 김동춘.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pp. 101-116.
- 김미란. 2010.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 9호. 11-43.
- 김미란. 2010a.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4월혁명의 재현방식과 배제의 수사학." 『여성문학연구』 23. 79-118.
- 김선기·옥미애·임동현. 2018.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화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 90. 7-43.
- 김영순. 2017. "청년 노동조합운동의 복지의제와 복지국가 전망: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1). 233-259.
- 오제연. 2013.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대학의 위상변화." 『역사비평』. 36-64.
- 오제연. 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136-172.
- 오하나. 2016. "80년대 노동운동 내 학생출신 활동가를 둘러싼 비판담론의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35호. 557-600.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레디앙
- 유경순. 2013.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 양상과 영향: 1970년대를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통권 29호. 52-96.
- 유경순. 2015.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학연대활동과 노동현장투신 방식의 변화." 『기억과전망』 통권32호. 200-246.
- 유명철. 2018.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57(1). 37-71.
- 유형근. 2015.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연구』 58(2). 38-77.
- 윤해동. 2015. "근대의 마지막 성체, 대학." 『상허학보』 44. 601-642.
- 은수미. 2006.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기억과전망』 15호. 199-237.
- 이남희. 2015. 『민중만들기』. 이경희·유리 옮김. 후마니타스.
- 이범. 2019. "청년들은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경향신문』. 6월 18일자.
- 이상록. 2018.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시장은 사회와 인간을 어떻게 바꿨나?" 『사학연구』 130. 275-334.
- 이태복. 1994. "내가 겪은 사건: 노동운동 투신 동기와 민노련 민학련 사건." 『역사비평』. 262-281.
- 이호룡·정근식 엮음. 2013.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박스.
-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 정근식. 2013.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17-59.
- 채구묵. 2007. "1980년대 민주노동운동에서 학생 출신 지식인의 역할." 『역사비평』. 385-415.
-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 15-50.
- 편집부. 2011. "20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민달팽이 유니온 장시원 위원장." 『협동조합네트워크』 55. 148-154."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에서 불안정노동자로 한국사회운동사에서 대학생의 지위 변천사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6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